



규제 노이즈 지속 중이지만 과징금 불확실성은 완화 기대

은행 Weekly | 2025.12.15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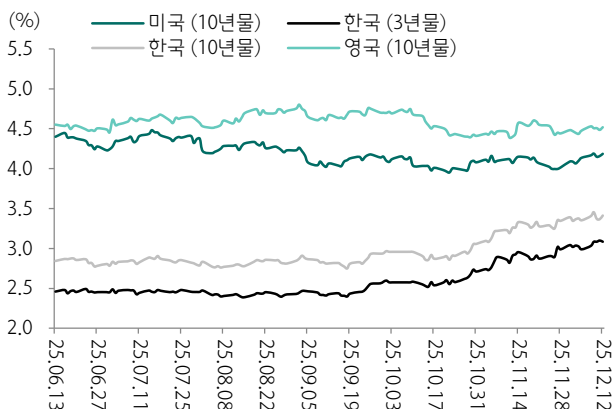
- 정치권이 추진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의 출연금 인상 방안을 검토. 출연요율을 0.2%까지 추가 상향하고 상시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 서민금융 상품의 손실도 계속 커지고 있어 은행권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
- 교육세·출연금 부담이 커진 은행들이 앞으로는 대출 가산금리에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게 됨.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하지만 은행권이 가장 우려해온 대출 가산금리 산정 관련 처벌조항은 빠질 것이 유력해지며 최악은 피했다는 입장
- 정치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자금을 은행권에 전가. 은행들은 최소 보증금 3분의 1 지원과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까지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 또한 피해주택에 대한 선순위 담보대출 회수액을 낮춰 LH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
-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과 신한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를 심의·의결. 현재 IMA사업 인가 대기사는 NH투자증권 1곳, 발행어음 인가 대기사는 메리츠증권·삼성증권 2곳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5년 12월 12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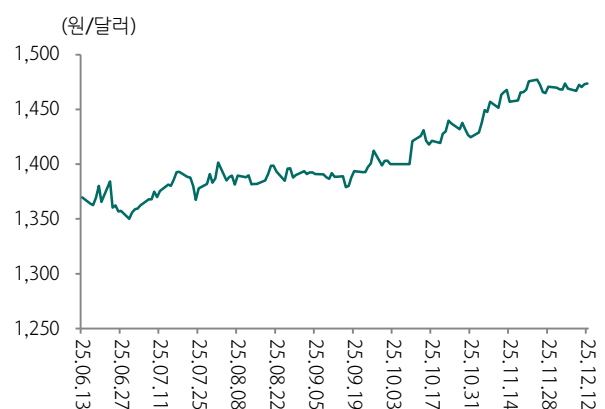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56	27.6	5.6		3,435,670.9	1.6	0.4	22.7	73.7	361.5	171.7	1,017.3	-1,517.4
은행	0.61	7.1	8.8	0.62	171,160.6	-2.6	-3.1	6.9	59.3	-151.8	3.6	25.3	134.8
KB 금융	0.76	8.3	9.3	0.71	48,102.4	-3.5	-6.4	5.7	52.1	26.4	5.0	-82.6	55.4
신한지주	0.65	8.1	8.9	0.65	37,723.0	-3.1	-4.5	12.1	63.1	-73.9	-1.4	51.7	26.1
우리금융	0.57	6.3	9.2	0.58	20,297.2	-3.0	2.4	7.8	79.9	-47.7	1.4	23.1	24.5
하나금융	0.59	6.5	9.0	0.61	25,800.8	-2.6	-3.8	4.5	63.2	-46.1	-1.4	15.4	30.1
기업은행	0.48	6.3	7.7	0.56	16,865.6	0.5	1.9	7.0	47.6	-9.5	-0.2	13.5	-4.2
BNK 금융	0.44	5.8	7.7	0.54	4,798.1	-2.9	-2.3	-1.6	47.6	1.3	-1.4	4.1	0.7
iM 금융	0.37	4.9	7.6	0.47	2,304.4	-2.8	-2.5	-0.5	73.8	-4.0	1.0	-0.1	4.1
JB 금융	0.79	6.8	12.2	1.03	4,823.1	1.2	5.6	2.0	56.0	1.7	0.8	0.2	-1.9
카카오뱅크	1.52	21.6	7.2	0.73	10,446.1	-0.5	-2.4	-13.4	4.0	-4.7	-2.0	-1.8	6.6
삼성카드	0.76	10.1	7.6	2.17	6,638.7	5.7	8.5	8.5	45.2	11.4	0.4	-3.4	-7.7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2.6% 하락해 KOSPI 상승률 1.6% 대비 비교적 큰폭의 초과하락세 시현. 은행주 약세의 배경은 서민금융 공동출연료율을 최소 0.2%로 높이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전세사기 피해구제 자금이 은행권에 전가되는 등 규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하는 등 환율도 은행주에 비우호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오랜만에 외국인의 은행주 순매도가 멈춘 점은 의미있는 모습이었지만 규제 노이즈 발생 등으로 국내 기관이 상당폭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수급 여건도 긍정적이지 못했음. 지난주 FOMC에서의 기준금리 25bp 추가 인하 결정으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 장기물은 상승세 지속. 전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19%로 한주동안 5bp 상승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3.52%로 4bp 하락. 반면 국내 국채금리는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국채발행도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기록. 국내 10년물 국채금리는 3.41%로 5bp 상승, 3년물 국채금리는 3.09%로 한주동안 10bp나 상승. 한편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도 이를 연속 상승해 1,477.0원으로 마감. 금요일 야간거래에서는 1,479.9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내국인 해외투자, 기업·기관의 환헤지 및 연말 결제 등을 위한 달러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 따라서 주간 단위로는 한주간 3.6원 상승했음. 지난주에는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 KOSPI를 각각 3,600억원과 1.0조원 동반 순매수했는데 은행주는 국내 기관들이 1,520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250억원을 순매수.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은행주에 대해 순매수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반면 국내 기관은 투신 위주로 대거 순매도로 전환
- 전주 특징주는 삼성카드. 주가가 한주간 5.7%나 상승. 특히 하루 10만주를 넘지 못하던 거래량이 11~12일에는 30~40만주씩 거래되며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삼성카드는 배당성향이 50%에 달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대상기업에 해당된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이슈는 감지되지 않은 가운데 투신이 양일 150,000~200,000주씩 순매수한 점이 흥미로웠던 요인. 장중 매수 단위 또한 컸던 점이 비춰볼 때 아마 1~2개 특정기관의 매수인 것으로 추정.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주가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보임. 그 외 JB금융과 기업은행도 주가가 각각 1.2%와 0.5% 상승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선방
- 지난주에는 KB금융만 유일하게 자사주를 매입. 신한지주(하반기 예정분 6,000억원 12/8 매입 완료)와 BNK금융(하반기 예정분 600억원 10/27 매입 완료), iM금융(하반기 예정분 200억원 10/22 매입 완료)은 이미 예정된 자사주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하나금융과 JB금융은 아직 매입 여력이 남아 있지만 12월 1일 이후로 추가 매수를 자제하고 있는 상태임(하나금융은 4분기 추가 예정분 중 1,500억원 중 1,000억원 매입 완료, JB금융은 4분기 추가 예정분 400억원 중 175억원 매입 완료). KB금융은 하반기 예정분 6,600억원 중 전일까지 6,470억원 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2월내 잔여분 130억원 매입을 끝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나금융과 JB금융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기업 적용을 위한 4분기 DPS 상향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일단은 자사주 매입을 정지한 것으로 보임. 추후 연내 자사주 매입이 재개될 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4분기 배당 규모를 어느정도 확정하고 난 이후에야 다시 자사주 매입에 나설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
- 금주 주요 이슈는 18일 열릴 홍콩 ELS 과징금 제재심의위원회. 11월 증선위가 과태료 제재건에 대해 절반 수준으로 감경 조치를 내린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금감원장도 소비자 구제 여부를 참작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만큼 과징금도 제재 수준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물론 18일 제재심에서는 부과 기준에 대해 감독원과 은행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므로 곧바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을 공산이 크고, 추후 제재심이 추가적으로 더 열릴 것으로 예상. 다만 18일이 지나면 대략적인 분위기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 우리는 과징금 불확실성이 상당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동안 잠잠하던 규제 노이즈가 다시 발생하면서 은행주 투자심리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된 손익 영향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규제 노이즈가 은행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에 그쳤다는 점에서 추세 또는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연말로 갈수록 과징금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배당매력 또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 향후 환율 변화 여부 등에 따라서 반등 모멘텀이 배가될 수도 있다고 판단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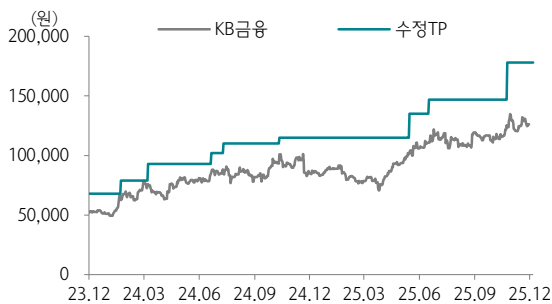
KB금융(매수/TP 178,000원), 신한지주(매수/TP 112,000원)

- KB금융은 3분기 실적에서도 강력한 펀더멘털 재확인. 홍콩 ELS 및 은행 LTV 담합 의혹 관련 제재심 이후에는 관련 우려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과징금 우려만 해소될 경우 투자심리가 큰폭 개선되고, 외국인 매수세 또한 유입될 것으로 기대
- 신한지주도 2025년 총주주환원율이 50%를 상회하면서 밸류업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전망. 과징금 우려 완화와 국채금리 상승 현상, 상법개정안 등 정책 모멘텀과 배당매력 발생으로 외국인 매수를 동반한 대형 은행주 동반 랠리 기대

Global Peer Table						(2025년 12월 12일 종가 기준)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56	27.6	5.6		3,435,670.9	1.6	0.4	22.7	73.7
은행	0.61	7.1	8.8	0.62	171,160.6	-2.6	-3.1	6.9	59.3
KB금융	0.76	8.3	9.3	0.71	48,102.4	-3.5	-6.4	5.7	52.1
신한지주	0.65	8.1	8.9	0.65	37,723.0	-3.1	-4.5	12.1	63.1
우리금융	0.57	6.3	9.2	0.58	20,297.2	-3.0	2.4	7.8	79.9
하나금융	0.59	6.5	9.0	0.61	25,800.8	-2.6	-3.8	4.5	63.2
기업은행	0.48	6.3	7.7	0.56	16,865.6	0.5	1.9	7.0	47.6
BNK금융	0.44	5.8	7.7	0.54	4,798.1	-2.9	-2.3	-1.6	47.6
IM금융	0.37	4.9	7.6	0.47	2,304.4	-2.8	-2.5	-0.5	73.8
JB금융	0.79	6.8	12.2	1.03	4,823.1	1.2	5.6	2.0	56.0
카카오뱅크	1.52	21.6	7.2	0.73	10,446.1	-0.5	-2.4	-13.4	4.0
삼성카드	0.76	10.1	7.6	2.17	6,638.7	5.7	8.5	8.5	45.2
미국									
S&P 500	5.30	25.7	18.9	4.68	60,484.6	-0.6	-0.2	4.0	16.1
은행	1.70	14.3	11.8	1.06	2,153.3	2.5	3.9	7.9	29.5
Wells Fargo	1.75	15.7	12.3	1.07	291.2	3.3	7.5	14.5	32.1
JPM	2.52	15.8	16.8	1.29	867.1	1.1	-0.6	4.3	32.9
CITI	1.01	14.3	7.6	0.59	200.0	2.7	8.7	13.1	58.8
BOA	1.44	14.5	10.5	0.89	402.7	2.2	2.4	9.6	25.5
US Bancorp	1.44	11.8	12.9	1.09	83.0	4.2	11.5	9.9	11.7
PNC	1.53	13.3	12.2	1.15	82.6	6.4	12.7	5.2	9.2
BB&T	1.06	12.6	8.6	0.98	63.8	5.0	10.6	11.7	15.0
중국									
상해A주지수	1.43	15.1	9.6	1.41	61,500.2	-0.3	-2.7	0.9	16.1
은행	0.74	7.7	9.7	0.72	12,392.1	-1.5	-4.4	2.4	13.6
공상은행	0.73	8.0	9.3	0.72	2,631.8	-0.3	-2.7	6.6	15.2
건설은행	0.67	6.9	9.9	0.80	1,852.9	-2.6	-5.5	-0.6	1.0
농업은행	0.98	9.9	9.8	0.64	2,619.2	-1.3	-10.1	6.6	44.6
중국은행	0.68	7.5	9.2	0.67	1,668.7	-1.9	-1.1	4.0	1.5
교통은행	0.57	6.9	8.5	0.62	618.1	-0.9	-1.3	3.1	-5.4
초상은행	0.92	7.2	13.1	1.19	1,074.3	-3.9	-2.8	-1.9	6.2
일본									
NIKKEI	2.49	21.1	11.4	3.71	870,980.0	0.7	-0.4	14.3	27.4
은행	1.20	13.7	8.3	0.39	99,015.5	0.4	9.3	15.6	39.8
Mitsubishi UHF	1.35	13.4	10.2	0.57	29,657.4	-1.2	4.1	10.8	35.4
Sumitomo Mitsui Financial	1.23	12.7	10.0	0.60	19,182.9	0.5	16.2	23.6	32.1
Mizuho	1.29	12.8	10.4	0.40	14,244.4	1.0	10.4	19.4	47.7
Sumitomo Mitsui Trust	1.02	11.0	9.4	0.40	3,301.9	2.9	7.0	11.2	26.9
유럽									
MSCI Europe	2.27	16.6	12.8	1.56	14,158.8	-0.1	-1.1	4.6	13.7
은행	1.36	10.8	12.5	0.66	1,769.3	1.8	1.5	10.4	58.6
HSBC	1.48	10.4	12.7	0.76	191.0	4.7	-0.5	11.2	41.6
Santander	1.42	10.8	13.2	0.77	143.4	1.8	0.7	14.9	115.7
BNP Paribas	0.74	7.7	9.7	0.41	87.2	3.6	12.7	1.8	31.9
Credit Agricole	0.72	7.9	9.5	0.26	51.8	1.9	5.5	4.0	28.8
Deutsche	0.93	10.5	8.9	0.48	61.8	1.6	-4.8	0.2	90.5
Unicredit	1.58	10.2	16.6	1.24	105.1	3.7	1.5	3.5	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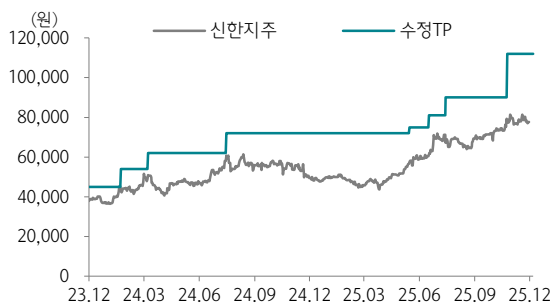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7	BUY	178,000		
25.6.30	BUY	147,000	-22.33%	-14.76%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24.7.4	BUY	102,000	-15.97%	-13.43%
24.3.21	BUY	93,000	-19.26%	-9.25%
24.2.5	BUY	79,000	-12.89%	-0.51%
23.9.11	BUY	68,000	-20.92%	-2.50%

신한지주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7	BUY	112,000		
25.7.28	BUY	90,000	-22.66%	-12.00%
25.6.30	BUY	81,000	-15.96%	-11.36%
25.5.29	BUY	75,000	-20.53%	-18.67%
24.7.29	BUY	72,000	-27.80%	-14.72%
24.3.21	BUY	62,000	-23.07%	-6.45%
24.2.5	BUY	54,000	-16.81%	-4.63%
23.4.5	BUY	45,000	-20.35%	0.67%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12월 15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5년 12월 15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73%	4.27%	0.00%	100%

* 기준일: 2025년 12월 12일